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자들의 학회지 게재논문과 인용학술지 분석 연구*

An Analysis on the Articles and Cited Journals Suggested by LIS Researchers of Korea

조 인 숙(In-Sook Cho)**

한 미 숙(Mi-Sook Han)***

초 록

본 연구는 동일한 학문분야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의 연구행태를 분석하여 그 분야의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술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조사하고 해당 대학도서관에서 필수적으로 구독해야 할 학술지 구독리스트를 제안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인용문헌 분석결과는 국내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각 대학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문헌정보학분야의 소장 학술지의 과부족을 파악하여 국내의 학술지 구독 선정을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lies in researching what kind of literature is mainly used by researchers in the related field by analyzing the research pattern of researchers who major in the same field of science, and to propose a list of literature that is indispensable for college libraries to prepare. Based on such analysis results of cited literature, this study is to propose necessary standards for selecting and reading journal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LIS) in the libraries of Korean colleges where a LIS department is established.

키워드: 문헌정보학, 학회지 논문분석, 인용문헌분석, 연구행태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LIS),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Citation Analysis,
Research Behavior

* 본 연구는 2007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ischo@hansung.ac.kr)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해외정보팀 사서(misuk@kisti.re.kr)

논문접수일자 : 2007년 11월 20일 논문심사일자 : 2007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자 : 2007년 12월 4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식정보의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의 축적과 활용, 전달방식 및 전달속도 등 많은 측면에서 과거와는 차이가 다른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IT기술 및 학문의 발달로 인하여 학문의 영역이 세분화되고 그 분야의 연구자나 전문가의 수가 늘어나며 또한 그 연구내용 및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학회지나 전문학술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문의 발달과 학술적인 연속간행물의 간행종수가 지수함수적인 관계를 가지고 증가한다는 사실도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다.

연구자들의 발표논문은 연구자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학회지에 게재된다. 연구자가 연구논문을 학회지에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은 연구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연구 주제의 선정으로부터 관련정보의 선택 및 활용, 연구방법의 선정,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와 발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 학회의 성격과 규모 및 특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학문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학회지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할 이유는 학술커뮤니케이션의 공식매체로서 최신정보원인 동시에 한 시대의 여론이나 사회의 조류를 분석할 수 있으며, 학문의 흐름이나

발전단계를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한 학문분야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의 연구행태를 분석하여 그 분야의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술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조사하고 해당 대학도서관에서 필수적으로 구독해야 할 학술지 구독리스트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전국 문헌정보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수들의 연구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어떤 학술지를 주로 인용하였는지 살펴보고, 인용빈도가 가장 높은 국내외 학술지를 순위별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용빈도가 높은 학술지를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독여부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인용문헌 분석결과는 국내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각 대학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문헌정보학분야의 소장 학술지의 과부족을 파악하여 국내외 학술지 구독 선정을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를 선정하여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5개 학회지 『서지학연구』,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게재된 총 1,893편의 논문중에서 국내 문헌정보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수 이상이 게재한 1,230편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논문에 인용된 인용문헌은 총 33,352편으로 이중 학술지 논문만을 분석하

였다.

첫째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회현황, 표본집단 학회지의 게재논문 건수를 조사하였고 문헌정보학교수의 개인별 평균 게재논문수, 게재논문의 주제분류, 연도별 인용문헌의 자료유형을 분석하였다.

둘째 학술지 인용문헌 분석에서는 1,230편에 인용된 33,352편중 인용빈도가 높은 국내외 학술지 130종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학술지 연도별 인용빈도, 인용된 국내외 학술지의 수명, 인용된 국내외 학술지 인용빈도 순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셋째 국내외 학술지 130종중 인용빈도가 높은 국내외 43종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38개 대학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독여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공동저자의 경우는 제1저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2001년에 창간되어 대상논문이 21건으로 다른 학회지와 표본대상 건수가 많은 차이를 보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학술지 활용과 인용문헌 분석

학문이 독자적인 연구영역과 이론을 형성하여 발전해 가면서 일정기간까지 수행된 학문활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의 학문적 위상과 앞으로의 학문 발전 방향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또 어떤 학회지

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연구자들이 그 학회지를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인에게 있어서 논문이 지식을 생산하는 수단이라면, 이렇게 생산된 지식의 유통, 수집, 확산 그리고 소비 과정 즉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되는 것이 “학술지”라는 매개체이다.

인용분석이란 인용한 문헌과 인용된 문헌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계량정보학의 한 연구분야이다. 즉 연구논문은 그 문헌을 인용하거나 참고한 자료를 주(註)나 참고문헌을 통해 표기함으로써 그 문헌이 관련 주제분야의 이론적 배경 틀 안에 어떻게 자리잡고 있으며 서지적 현상의 고유한 특성을 어떻게 내포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참고문헌을 이용하여 인용분석은 개인의 연구결과나 학회지를 평가하며, 학술생산성, 학술커뮤니케이션, 문헌의 지적구조, 주제영역, 저자생산성 분포, 학회지의 노화현상 등을 확인하는데 활용하며, 연구자에게 있어서 관련분야의 주요문헌을 검색하고 인용관계의 추적을 통해 선행조사 및 동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술지의 발간회수와 수록 논문수, 도서관 소장여부, 논문의 수명감소 또 인용하는 사람에 상관없이 모두 동등하게 인용빈도가 계산되므로 인용된 기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인용되었는가 하는 질적인 측면 등에 따라 달라지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학술지의 인용문헌 분석은 기존 학술지의 계속구독 여부, 폐기, 신규 학술지의 구독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2.2 선행연구

한상완과 조인숙(1996)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분야의 학회지 논문의 내용분석을 위해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도서관학논집』, 『정보관리학회지』, 『서지학연구』 등 4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을 연구자, 논문주제 및 참고문헌의 22,813건을 언어별 분포 등 세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주제별 분포는 문헌정보학분야의 관종별 도서관 중 대학도서관(17.0%)이, 정보학분야는 정보검색(22.7%), 서지학분야는 고향자, 판본학 등을 포함한 고서지(72.4%)분야 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문헌정보학회지와 도서관논집에는 문헌정보학, 정보학 및 서지학의 논문이 종합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정보관리학회지에는 정보학의 논문이, 서지학연구에는 서지학에 관한 논문만이 게재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강순애(1997)는 서지학분야의 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지학연구』 제1집~12집에 발표된 122건의 논문을 대상으로 서지학분야의 주제영역을 8개의 연구영역, 소스문헌의 저자와 주제관련 사항, 인용문헌의 주제, 언어, 자료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서지학 연구자들은 판본학과 목록학의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현대의 새로운 이론체계에 의하거나 문헌정보학과 관련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인문 과학적인 성격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홍기철(2001)은 학술잡지의 평가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로서 박사학위논문 50편을 대상으로 이용된 이용빈도와 이용분포를 연구하였다. 즉 학술잡지를 신규로 구독할 경우에는

이용빈도와 이용분포를 조사하여 양쪽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학술잡지를 우선적으로 구독해야 하며, 학술잡지의 선택과 취소는 여러 가지의 평가방법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치주(2002)는 1996-2000년 기간 중에 진행된 『도서관』, 『국회도서관보』, 『도서관 문화』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영역과 주제 의존도 및 핵심저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어권 문헌보다 한국문헌을 더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연구주제 분야는 문헌정보학(31.6%) 영역이 가장 활발하였고, 그 다음이 도서관경영(18.8%), 정보시스템(14.1%), 정보처리(10.6%)순 이었다. 또한 도서관 현장에서는 단행본, 정기간행물을 선호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의한 웹 자원의 인용빈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최희곤(2003)은 문헌정보학분야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LISA와 ISA에 수록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논문 74편을 대상으로 DB에 수록한 인용문헌을 형태별, 국내외별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인용행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회지에 인용된 문헌의 80%로 가장 많은 인용율을 보였으며, 1991년-1995년도의 문헌이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1996년-2002년도 보다 오히려 더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오세훈(2005)은 1946년-2004년까지의 3개 전문기관지 및 3개의 학회지 논문 2,571편과 이에 인용된 문헌 30,418편을 대상으로 문헌과 피인용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제영역을 설정하고, 간행시기와 인용시기 등 연관성을 5개의 가설을 설정하여 통계

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핵심 주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된 연구 주제가 출현하고 쇠퇴하며, 논문의 주제와 간행시기 사이에 상관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피인용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는 인용시기 사이에 상관성이 존재하며 반감기는 평균 10년 미만이지만 주제에 따라 반감기에 차이가 있으며 연구자들의 자분야 의존도는 66.2%이고 타분야 의존도는 33.8%임을 발견하였다.

Ginn(2003)은 2001년-2002년 사이에 간행된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에 발표된 논문의 저자 36명이 인용한 1,249편의 인용문헌을 대상으로 자료의 형태별, 인용저자, 문헌의 연령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헌의 연령별 인용 분포는 최근 10년(1993-2002년) 이내에 간행된 문헌의 비율이 가장 많으며(54.4%), 다음으로는 1983년-1992년(25.3%), 20년 이상(20.3%) 등의 순임을 제시하였다.

Horri(2004)는 이란의 문헌정보학 분야 2,490편의 연구논문에 대한 현황과 주제분석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연구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의 순으로 많았으며, 주제분석은 서지통정(18.7%), 도서관 및 정보센터(14.8%), 정보추적 및 검색(10.2%), 도서관 이용 및 봉사(9.4%) 등 순임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는 학회지, 기관지, 학위논문 및 단행본을 대상으로 간행시기, 주제별 분포, 연구자의 인적 특성 및 연구방법 등을 계량적으로 조사, 분석하거나 아니면 연구논문에 제시된 참고문헌이나 인용된 문헌의 주제, 유형, 언어, 타학문 의존도, 반감기 등을 조사하여 인용문헌 분석의 동향을 밝히는데 일부 한정되

어 있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부분을 보완하면서 더 나아가 문헌정보학분야의 국내외 학술지 구독선정을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및 분석대상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교수들이 게재한 논문으로 수집범위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5종의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즉 『서지학연구』는 제12집~32집까지, 『정보관리학회지』는 제13권 1호~제22권 4호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제24집~제29집, 제30권 1호~제36권 4호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제30권 1호~제39권 4호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제8권 1호~제16권 2호까지이다. 여기에 게재된 총 논문 1,893편중 저자가 문헌정보학과 전임교수가 게재한 연구논문 1,230편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한 뒤 이 연구논문에 인용된 학술지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1 문헌정보학분야 6개 학회지의 현황

(표 1 참조).

3.2 표본집단 학회지의 게재논문 건수

전임교수 이상이 게재한 논문의 5개 학회지는 총 1,230편으로 표 2와 같다.

(표 1) 문헌정보학분야 6개 학회지의 현황

(창간년도순)

학회	구분	학회지명	창간년	현재의 간기	학진등재 선정년도	비 고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70	계간 (1996~)	2001	'도서관학'에서 명칭 변경(1993) 간기: 연간(1970~1988) -> 반년간(1989~1995)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974	계간 (1999~)	2001	'도서관학논집'에서 명칭 변경(1999) 간기: 연간(1974~1994) -> 반년간(1995~1998)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1984	계간 (1999~)	2001	간기: 연간(1984) -> 반년간(1985~1998)
서지학회		서지학연구	1985	년 3회 (2004~)	2001	간기: 연간(1985~1996) -> 반년간(1997~2003)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72	반년간 (2000~)	2005	'한국비블리아'에서 명칭 변경(2005) 간기: 연간(1997~1999)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01	반년간 (2001~)	-	

(표 2) 표본집단 학회지의 게재논문 건수

(가나다순) (단위: 건(%))

구분	학회지	서지학 연구	정보관리 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 학회지	한국문헌정보 학회지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합계
총수록논문		285(15.1)	415(21.9)	551(29.1)	470(24.8)	172(9.1)	1,893(100)
표본대상		190(15.4)	221(18.0)	411(33.4)	305(24.8)	103(8.4)	1,230(100)

3.3 교수 개인별 평균논문 건수

표본집단 총 1,230편중 192명 교수의 개인별 평균 게재논문 건수를 조사하였다. 아래 표 3과 같이 교수 개인별 10년간 게재논문 건수를 분석해 보면 1~5편을 발표한 경우가 101명(52.6%)으로 가장 많았으며, 6~10편 57명(29.7%), 11~15편 26명(13.5%), 16~20편 5명(2.6%), 21~25편 2명(1.0%)으로 나타났으며, 30편 이상 발표한 교수도 1명(0.5%)으로 조사되었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회지에 10년간 연구논문을 게재한 교수 1인당 평균 게재논문 건수는 15.6편으로 교수 52.6%가 평균 1~5편의 논문을 발표한 것을 보면 개인별 편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게재논문의 주제분류

주제분류는 연구논문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므로 연구목적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

(표 3) 10년간 교수 개인별 평균 게재논문 건수

(단위: 건(%))

건수	1~5	6~10	11~15	16~20	21~25	26~30	30이상	합계
저자수 (비율)	101 (52.6)	57 (29.7)	26 (13.5)	5 (2.6)	2 (1.0)	-	1 (0.5)	19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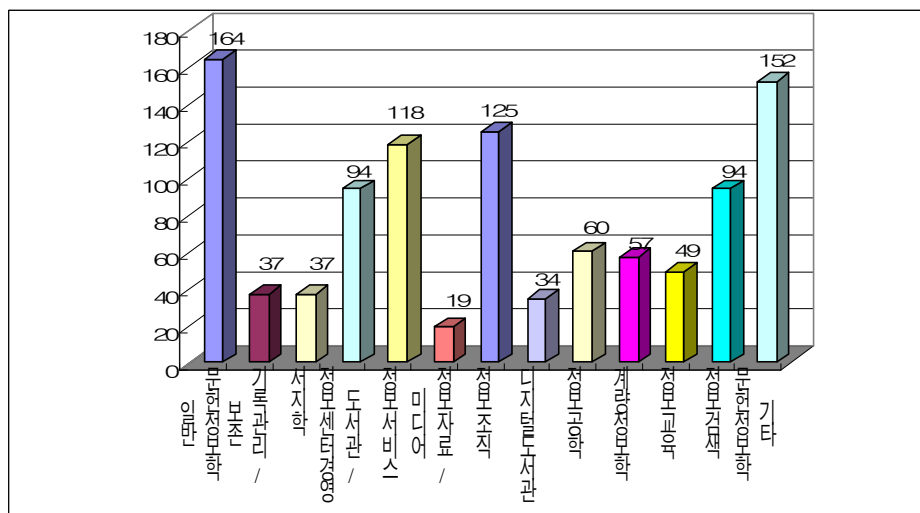
어야 하며, 포괄적이고 상호 배타적이어야 하며, 분류원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로 다른 주제분류표로 인하여 같은 문헌정보학분야의 주제분류가 저자의 각 연구논문마다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또 교수들은 소속대학으로 부터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있으며, 그 다음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처음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분류표를 사용하여 분류하였으나 『서지학연구』를 세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헌정보학분야 4개 학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분

류표에 의해서 13개의 항목으로, 서지학분야 1개 학회지는 강순애교수가 구분한 8개의 항목으로 작성된 분류표를 사용하여 나누어서 분류하였다.

3.4.1 한국학술진흥재단 주제분류

4개 학회지 총 1,040건의 논문을 주제분류한 결과 그림 1 문헌정보학 일반이 164건(15.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조직 125건(12.0%), 정보서비스 118건(11.3%), 도서관/정보센터경영과 정보검색 94건(9.0%)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문헌정보학도 152건(14.62.2%)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한국학술진흥재단 주제분류

3.4.2 서지학분야의 주제분류

본 연구에서는 강순애교수(1997)가 작성한 8개의 주제분류 즉 서지학일반 및 응용, 교감학, 목록학, 판본학, 고문서, 고문헌관리, 도서관사, 기타 관련연구를 이용하여 그림 2의 서지학분야의 190건을 주제분류 하였다. 강순애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판본학이 37.7%, 목록학이 32.7%의 비중을 차지한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감학 63건(33.2%), 서지학일반 및 응용 40건(21.1%), 도서관사 28건(14.7%)순으로 조사되었다.

살펴보면 단행본이 9,587건(28.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술지 9,316건(27.9%), 보고서 4,420건(13.3%), 웹자료 3,447건(10.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자료도 19.7%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자료유형의 변화추이 그림 3에는 별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으나 2000년 이후부터 웹자료의 인용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술지와 단행본의 인용도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3.5 연도별 인용문헌의 자료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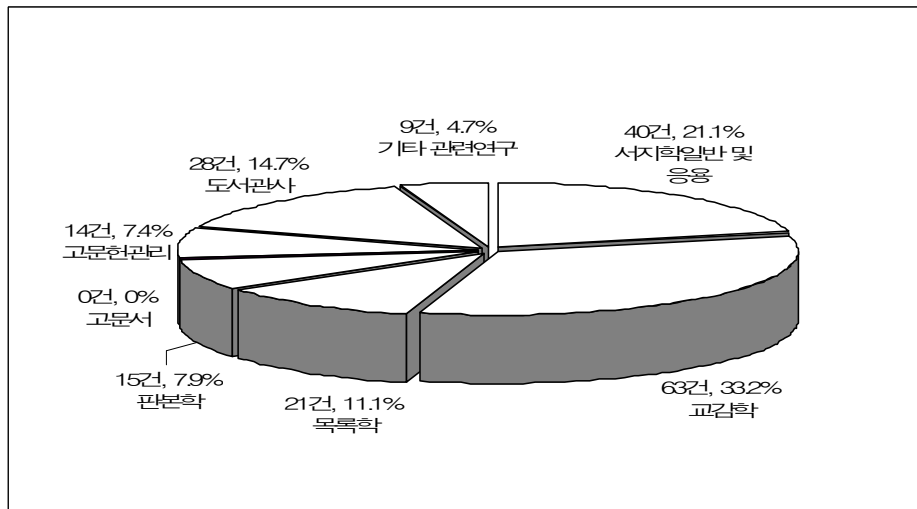
자료의 평균이용을 살펴보면 전체 1,230편의 연구논문에 총 33,352건의 인용문헌이 수록되어 학술지 논문 1편에 평균 27.1건의 참고문헌을 인용하고 있다.

아래 표 4의 연도별 인용문헌의 자료유형을

4. 학술지 인용문헌 분석

4.1 국내외 학술지 연도별 인용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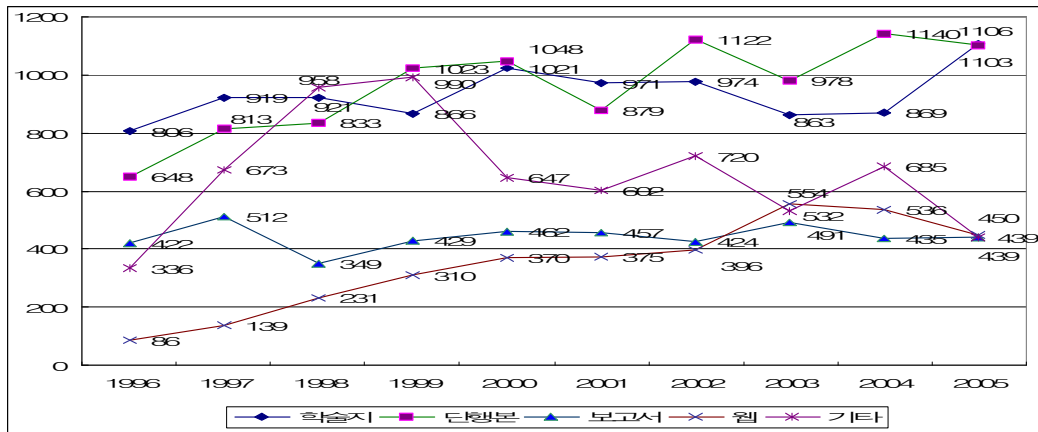
국내외 학술지 연도별 인용빈도 표 5를 살펴보면 학술지에 인용된 인용문헌 총 33,352건중 국내학술지는 4,439건(47.6%)이고, 국외학술지는 4,877건(52.4%)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 최희곤(2003)의 국내외 학술지가 3: 7



(그림 2) 서지학분야의 주제분류

(표 4) 연도별 인용문헌의 자료유형

연도	유형	학술지	단행본	보고서	웹자료	기타	총계
	건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1996		806(8.7)	648(6.8)	422(9.5)	86(2.5)	336(5.1)	2,298(6.9)
1997		919(9.9)	813(8.5)	512(11.6)	139(4.0)	673(10.2)	3,056(9.2)
1998		921(9.9)	833(8.7)	349(7.9)	231(6.7)	958(14.6)	3,292(9.9)
1999		866(9.3)	1,023(10.7)	429(9.7)	310(9.0)	990(15.0)	3,618(10.8)
2000		1,021(11.0)	1,048(10.9)	462(10.5)	370(10.7)	647(9.8)	3,548(10.6)
2001		971(10.4)	879(9.2)	457(10.3)	375(10.9)	602(9.1)	3,284(9.8)
2002		974(10.5)	1,122(11.7)	424(9.6)	396(11.5)	720(10.9)	3,636(10.9)
2003		863(9.3)	978(10.2)	491(11.1)	554(16.1)	532(8.1)	3,418(10.2)
2004		869(9.3)	1,140(11.9)	435(9.8)	536(15.5)	685(10.4)	3,665(11.0)
2005		1,106(11.9)	1,103(11.5)	439(9.9)	450(13.1)	439(6.7)	3,537(10.6)
합계		9,316(27.9)	9,587(28.7)	4,420(13.3)	3,447(10.3)	6,582(19.7)	33,352(100)



(그림 3) 연도별 자료유형의 변화추이

(표 5) 국내외 학술지 연도별 인용빈도

(단위: 건(%))

구분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국내	건	307	363	312	323	553	491	509	419	496	666	4,439
	(비율)	(6.9)	(8.2)	(7.0)	(7.3)	(12.5)	(11.1)	(11.5)	(9.4)	(11.2)	(15.0)	(47.6)
국외	건	499	556	609	543	468	480	465	444	373	440	4,877
	(비율)	(10.2)	(11.4)	(12.5)	(11.1)	(9.6)	(9.8)	(9.5)	(9.1)	(7.6)	(9.0)	(52.4)
총계	건	806	919	921	866	1,021	971	974	863	869	1,106	9,316
	(비율)	(8.7)	(9.9)	(9.9)	(9.3)	(11.0)	(10.4)	(10.5)	(9.3)	(9.3)	(11.9)	(100)

의 비율을 보인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4.8: 5.2의 비율로 국내외 학술지의 인용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간에 차이는 문헌정보학 교수들이 해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에는 국내 학술지보다 국외 학술지 인용이 2배정도 많은데 비하여 국내 학회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국내 학술지와 국외학술지의 인용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지학분야는 학술지보다 단행본이 많이 인용되었다.

최신 자료인 간행된지 3년 이내(2005~2002)의 학술지는 661건(20.0%)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8~11년(1997~1994) 사이에 간행된 학술지는 773건(23.4%)으로 조사되었다. 간행연도를 기점으로 11년(2005~1994)이내에 간행된 논문이 2,582건(78.2%)으로 주로 많이 인용되었다. 또한 30년 이상된 학술지를 인용한 문헌도 145건(4.4%)으로 특히 『서지학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서 오래된 학술지를 인용한 경우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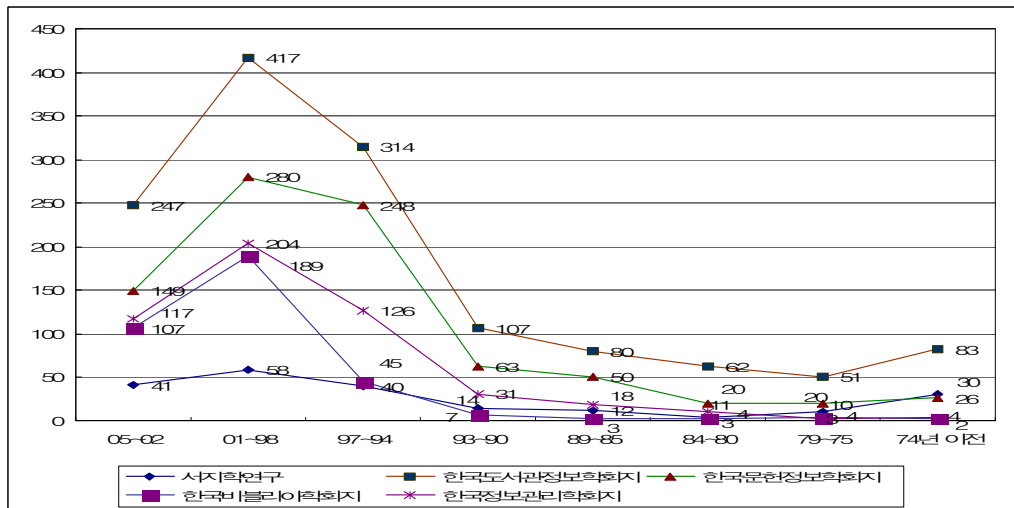
4.2 인용된 학술지의 수명

4.2.1 국내학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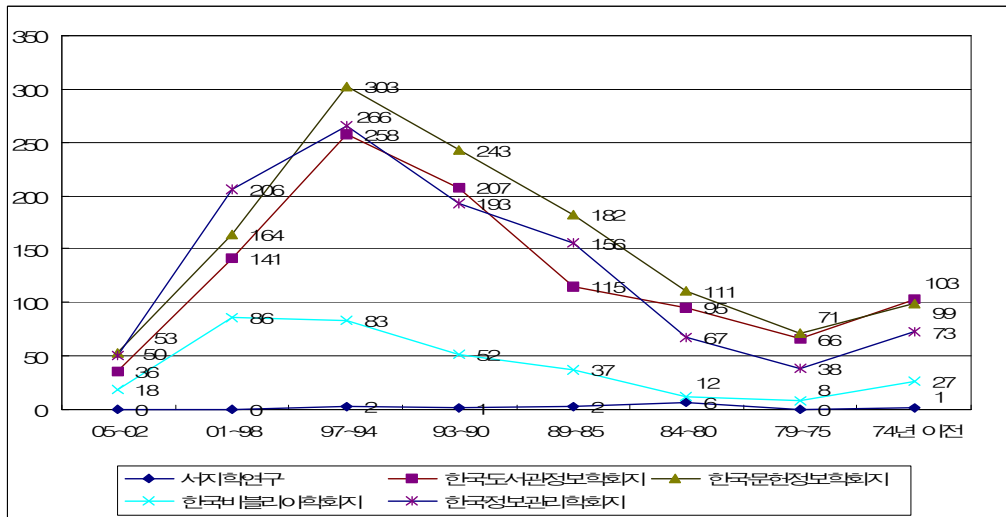
간행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인용문헌의 수명을 조사·분석한 결과 학술지에 인용된 문헌은 아래 그림 4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4~7년(2001~1998) 사이에 간행된 학술지가 1,148건(34.8%)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4.2.2 국외학술지

간행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인용된 국외학술지의 수명은 아래 그림 5와 같다. 자세히 살펴보면 간행된지 8~11년된 학술지를 인용한 것이 912건(25.1%)으로 가장 많았고, 12~15년 696건(19.2%), 4~7년 597건(16.4%), 16~20년 492건(13.5%)으로 밝혀졌다. 또 평균적으로



(그림 4) 인용된 국내학술지 수명의 변화추이



(그림 5) 인용된 국외학술지 수명의 변화추이

20년 이내의 학술지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 학술지 보다 인용수명이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간행된 학술지의 인용은 157건(4.3%)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최신성을 필요로 하는 학술지 활용에 대한 의미를 무색하게 하였다.

4.3 인용된 학술지의 인용빈도

국내 학술지 24종, 국외학술지 106종을 포함하여 총 130종을 대상으로 하여 이중 인용빈도가 많은 전체 1.0% 이상되는 국내외 학술지는 43종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국내학술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구 도서관학은 99건으로 3.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구 도서관학논집은 244건으로 7.4%), 『도서관문화』(구 도협월보는 70건으로 2.1%)와 국외 학술지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구 “RQ”는 85건으로 2.3%)의 4종은 이전서명으로 인용빈도가

많았다.

4.3.1 국내학술지

인용빈도가 많은 국내학술지를 조사한 결과 표 6과 같이 문헌정보학분야의 학술지는 13종이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812건(24.6%)으로 가장 많은 인용빈도를 나타냈으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639건(19.4%), 『정보관리학회지』 504건(15.3%)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서지학연구』 133건(4.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88건(2.7%),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5건(2.0%)으로 문헌정보학분야의 학술지 모두가 상위권에 들었다. 또한 『도서관』, 『도서관문화』, 『국회도서관보』는 각 대학도서관에서 기증받는 자료로 많이 인용되고 있었다.

4.3.2 국외학술지

인용빈도가 많은 국외학술지종의 인용빈도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 7과 같이 30종이었다.

(표 6) 국내학술지 인용빈도 순위

순위	국내학술지명	ISSN NO	인용빈도수(비율)
1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225-598X	812(24.6)
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013-0799	639(19.4)
3	정보관리학회지	1225-0902	504(15.3)
4	도서관	1011-2073	297(9.0)
5	도서관문화	1225-5521	254(7.7)
6	국회도서관보	0027-8572	193(5.9)
7	서지학연구	1225-5246	133(4.0)
8	정보관리연구	0254-3621	101(3.1)
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229-2435	88(2.7)
10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98-1487	65(2.0)
11	국가기록연구(구. 기록보존)	1975-8057	60(1.8)
12	기록학연구	1229-7941	45(1.4)
13	(디지털)도서관	1226-5802	34(1.0)

(표 7) 국외학술지 인용빈도 순위

순위	국외학술지명	ISSN NO	인용빈도수(비율)
1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1532-2882	379(10.4)
2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0010-0870	255(7.0)
3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0099-1333	248(6.8)
4	Library Trends	0024-2594	221(6.1)
5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0740-8188	149(4.1)
6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0306-4573	131(3.6)
7	Library Journal	0363-0277	113(3.1)
8	The American Archivist	0360-9081	103(2.8)
8	Reference and user Services Quarterly	1094-9054	103(2.8)
10	The Library Quarterly	0024-2519	94(2.6)
11	Online	0146-5422	89(2.5)
12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0730-9295	87(2.4)
13	The Journal of Documentation	0022-0418	85(2.3)
14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0024-2527	84(2.3)
15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Quarterly	0163-9374	80(2.2)
16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0193-0826	78(2.2)
17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0748-5786	76(2.1)
18	Library Hi Tech	0737-8831	74(2.0)
19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0066-4200	70(1.9)
20	Aslib Proceedings	0001-253X	55(1.5)
21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0165-5515	54(1.5)
22	The Serials Librarian	0361-526X	52(1.4)
23	Communications of the ACM	0001-0782	50(1.4)

24	Library Association Record	0024-2195	49(1.4)
25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ies	0194-262X	47(1.3)
26	現代の圖書館(日本)	0016-6332	46(1.3)
27	Library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0888-4463	43(1.2)
28	Advances in Librarianship	0065-2830	41(1.1)
28	Online information Review	1468-4527	41(1.1)
30	學校圖書館(日本)	0435-0405	40(1.1)

이중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는 379건(10.4%),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는 255건(7.0%),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은 248건(6.8%), “Library Trends”는 221건(6.1%)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특히 3-4종의 학술지에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5. 대학도서관의 학술지 구독여부

문헌정보학분야의 인용빈도가 많은 국내외 학술지 130종을 대상으로 인용이 높은 국내외 43종의 학술지를 선정하여 국내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38개 대학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현재의 구독여부를 확인하였다.

각각의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먼저 소장 자료에 대한 자료검색을 하여 서지사항을 확인한 후 체크인 정보에서 입수 구독현황을 확인하였다. 자료소장 여부는 전자학술지와 인쇄학술지로 구분하여 구독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는데 전자학술지와 인쇄학술지의 중복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많은 대학들이 인쇄학술지를 대체하여 전자학술지로 구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조사한 결과 인용빈도가 높

은 학술지는 구독도 가장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표 8, 표 9 참조).

5.1 국내학술지

아래 표 8에서 살펴보듯이 국내학술지는 13종을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국내 38개의 대학도서관에서 구독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를 구독하는 것은 아니었다. 국내학술지중 기증을 받는 『도서관문화』(35개)가 가장 많고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34개)는 대학에서 구독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도서관』, 『국회도서관보』는 발행기관에서 기증을 하는 자료로 33개 대학에서 구독하고 있었다.

5.2 국외학술지

인용빈도가 높은 국외학술지 30종을 38개의 대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독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즉 국외 학술지 “The Libray Quarterly”와 “Library Trends”는 20개 대학,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는 19개 대학에서 구독중인 자

(표 8) 국내 학술지의 구독여부

유형	국내 학술지명	발행기관	구독 대학수
학·협회지	도서관문화	한국도서관협회	35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	34
	정보관리학회지	한국정보관리학회	3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	31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30
	서지학연구	서지학회	27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기록관리학회	21
기관지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33
	국회도서관보	국회도서관	33
	정보관리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1
	(디지털)도서관	한국디지털도서관	29
	국가기록연구(구 기록보존)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25
기록학연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19	

(표 9) 국외 학술지의 구독여부

유형	국외 학술지명	발행기관	구독수
학·협회지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Libra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19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6
	Communications of the ACM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13
	Reference and user Services Quarterly(구 RQ)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2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ssoci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11
	現代の圖書館(日本)	日本圖書館協會	7
	Library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Library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Association	7
	LA Record	Library Association	1
	學校圖書館(日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6
	The American Archivist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5
기관지	The Library Quarterl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
	Library Trends	University of Illinois Library School	19
기타(전문출판사포함)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Pergamon Press; Elsevier	19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Elsevier Science; Mountainside Pub.	18
	Library Journal	Reed Elsevier Inc.	18
	The Journal of Documentation	ASLIB; Emerald	18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John Wiley & Sons	16
Online	Online, inc.; Information Today Inc.	16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Elsevier Science; Ablex Pub. Corp.	14
Aslib Proceedings	Aslib	13
Library Hi Tech	Pierian Press	12
Online information review	MCB University Press	12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Quarterly	Haworth Press	11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North-Holland	9
The Serials Librarian	Haworth Press	9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Haworth Press	9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ies	Haworth Press	2
Advances in Librarianship	Academic Press	1

료로 조사되었다. 또한 특이한 점은 “The Library Quarterly”가 가장 많은 대학에서 구독함에도 인용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6. 결론

오늘날 사회가 다양해지고, 학문이 고도로 발전하며 전문화됨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는 다양해지고 정보의 전문성과 최신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보요구의 특성에 잘 부합되는 학술지의 가치는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한 학문분야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의 연구행태를 분석하여 그 분야의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술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조사하고 해당 대학도서관에서 필수적으로 구독해야 할 학술지 구독리스트를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문헌정보학분야의 5개 학회지에 게재된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어떤 학술지를 주로 인용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또 인용빈도가

많은 국내외 학술지를 순위별로 조사하여 인용빈도가 높은 학술지를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독 여부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회지의 게재논문 편수를 분석한 결과 1996년보다 2000년에 2배로 증가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미미하게 증가를 보였다. 또 교수 개인별 게재논문수를 보면 10년 동안 교수 1인당 평균 게재논문 편수는 15.3건으로 조사되었으나 교수 52.1%가 평균 1~5편의 논문을 발표한 것을 보면 개인별 편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제분류에 대한 분석은 문헌정보학과 서지학분야로 나누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주제분석은 문헌정보학 일반 164건(15.8%), 정보조직 125건(12.0%), 정보서비스 118건(11.3%), 도서관/정보센터경영과 정보검색 94건(9.0%)순 이었으며, 서지학분야는 교감학 63건(33.2%), 서지학일반 및 응용 40건(21.1%), 도서관사 28건(14.7%)순으로 조사 되었다.

셋째, 전체 표본 대상 1,230편에 인용된 참고 문헌이 33,352건으로 평균 1편에 27.1건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 자료유형을 보면 단행본 9,587건(28.7%), 학술지 9,316건(28.7%), 보고서 4,420건(13.3%), 웹자료 3,447건(10.3%) 순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인용된 국내외 학술지의 수명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국내학술지는 4~7년(2001~1998년)에 1,148건(34.8%), 국외 학술지는 8~11년(1997~1994년)에 912건(25.1%)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었다.

다섯째, 인용빈도가 많은 국내외 학술지 총 130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인용빈도가 많은 국내외 학술지는 43종이 선정되었다. 이 중 국내학술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812건(24.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639건(19.4%)으로 많았으며, 국외학술지는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가 379건(10.4%),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가 255건(7.0%)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국내의 학술지 모두 3~4종에 집중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인용빈도가 높은 국내 13종, 국외 30종 총 43종의 학술지를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38개의 대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현재 구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내학술지로는 『도서관문화』가 35개 대학에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가 34개 대학에서 구독하고 있으며, 국외 학술지로는 “The Libray Quarterly”와 “Library Trends”는 20개 대학에서,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는 19개 대학에서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인용빈도 순위와 학술지 구독순위와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최근에는 인쇄형태의 학술지를 구독중지하고 전자형태의 학술지로 대체하여 구독하는 대학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대학도서관에서 학술지구독을 위한 선정기준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요구 및 판단, 학술지의 역사 및 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가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용문헌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도서관에서 문헌정보학분야의 학술지를 선정, 구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선정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후속연구로 문헌정보학분야 전자자원의 인용분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도서관 현장에서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순애. 1997. 한국의 서지학 연구 경향 - 『서지학연구』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14집: 1-21.
- 고성순, 최상기. 2005. 인용문헌 분석을 이용한 외국학술잡지 이용행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441-457.
- 노영희. 2005.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발전현황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479-503.
- 오세훈. 2005.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과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 이치주. 2002. 현장중심의 문헌정보학분야 잡지를 통한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년~2000년. 『정보관리학회지』, 19(3): 145-160.
- 최희곤. 2003.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 LISA & ISA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1): 61-79.
- 한상완, 조인숙. 1996. 문헌정보학분야 학회지의 논문분석. 『도서관』, 51(1): 114-139.
- 홍기철. 2001. 문헌정보학분야의 외국학술잡지 이용빈도와 이용분포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3): 35-50.
- 서지학회.
 <<http://www.biblio.or.kr/index.htm>>.
 정보관리학회.
 <<http://www.kosim.or.kr/html/intra.html>>.
 한국도서관·정보학회.
 <<http://www.liss.or.kr/>>.
 한국문헌정보학회.
 <http://www.kliss.or.kr/ls_2.html>.
 한국비블리아학회.
 <http://www.biblia.or.kr/info_greeting.html>.
- Horri, Abbas. 2004. Bibliometric Overview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Productivity in Ira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1): 15-25.
- Ginn, Lida K. 2003. Citation Analysis of Authored Articles i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001-2002. *Mississippi Libraries*, 67(4): 106-109.

